



5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중호수도서관' 착공

# 전주매일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음 3월 20일) 제300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가 19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신원식 전북도 정부부지사 주재로 전주, 지방자치단체개발원,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3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상생 방안 찾아

### 도-공공기관 상생협의회 전기안전 클러스터 등 지역 상생 사업 논의

전북도가 19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신원식 전북도 정부부지사 주재로 전주, 지방자치단체개발원,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3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간담회(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적 코로나 유행 상황이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처음 열려 전북도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북도 상생 협조사항 공조, 공공기관별 현안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혁신도시의 발전방안,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도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설립팀 창단 협조, ▲지역인재 채용 합동채용설명회 참여, ▲올해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등 공공기관에 지역상생 방안을 적극 당부했다.

특히, 기관별 대표 현안 사업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과 같은 굵직한 지역산업 발전 사업부터 한국도로교통공사, 중소기업 상생희망펀드 사업과 같은 지역상생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상생협의회는 이전공공기관(13개 기관), 전북도, 전주, 완주군 등이 참여하는 공식 소통채널로 부기관장급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31회를 꾸준히 운영해오며 기관별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해결해왔다.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전북혁신도시 지역상생 지표에서 전북도가 전 분야 상위권을 달성하고 있다"며 "이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공공기관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상생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 치유·힐링 인프라 확충

### 부안 위도 치유의 숲 등

### 전북도내에서 속속 개장

### 공립 3곳 중 2곳은 운영 중

### 국립 3곳, 1~2년 안에 완료

전북가 산림에서 정서함양과 치유할 수 있는 산림치유시설을 속속 개장해 치유·힐링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심신이 피로해진 도민들에게 산림치유를 통한 일상을 회복하는 기운을 제공하기 위해 전북도에 조성하고 있는 치유의 숲 등 산림치유시설은 총 6개소로 공립 3개소, 국립 3개소이다.

공립 산림치유시설은 장수 부안, 순창으로 장수와 부안은 개장해 운영중에 있으며, 순창은 올해 안에 개장할 예정이다.

'장수군 그린치유의 숲'은 팔공산 자락 와룡자연휴양림 내 위치하고 있으며, 향기치유실, 건강치유실, 명상치유실 등을 갖춘 치유센터와 치유테마숲 등이 조성돼 있다.

건강체코, 교육·상담 등을 통해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에게 맞는 치유프로그램을 추천받아 열치료와 반신욕, 족욕, 차방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2022년 1월에 개장 3월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했으며, 4월부터는 일정의 교육 이용료 지불 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유일하게 섬에 위치하고 있는 '부안 위도치유의 숲'은 지난 4월 1일에 개장해 현재 시범 운영중으로 건강축적실, 치유실 등 치유센터와 무장애 데크길이 400여m 조성돼 있다.

건강체코, 교육·상담 등을 통해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섬 속에서 산림치유가 가능한 힐링 지대로 올해 10월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순창 용평산치유의 숲'은 섬진강이 남쪽으로 흐르고 있어 경관이 우수한 산림치유 인자가 존재해 다양한 숲체험 및 숲길을 조성했다.

이 곳을 찾는 이용객들은 강천산 국립공원, 체계산 출렁다리, 섬진강 요강비위, 용평산 치유의 숲으로 이어지는

숲길을 이용하면 다채로운 숲을 즐길 수 있다.

아직 개장하지 않았으나, 용평산을 찾은 누구나 숲체험 및 숲길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 조성하고 있는 국립산림치유시설인 진안의 '지역권산림치유원', 고창 '문수산백색숲공작장조사업', 익산 '치유의 숲'이 향후 1~2년 안에 완료되면 휴식, 치유, 힐링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생태자원이 어우러진 관광자원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치유의 숲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국가자격의 전문가인 산림치유지도사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운영·지도하는 시설이다.

유희숙 도 환경복지국장은 "코로나 19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쳐 있는 심신을 치유하고, 휴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때 치유의 숲 등에서 일상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자치경찰 한줄 정책 제안 도민 참여 열기 '후끈'

전북도 자치경찰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 '한줄 정책 제안'이 도민들의 열띤 참여로 마무리됐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도민 '한줄 정책 제안'을 추진한 결과,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전북형 치안정책 아이디어 80건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도민 '한줄 정책 제안'은 자치경찰제 시행 2년차를 맞아 도민 참여와 관심을 확대하고,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추진했다. 이번 제안에는 20대 청년층부터 80대 이상 고령층까지 전 세대가 참여했다.

제안내용은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 관련 제안(32.1%)과 자치경찰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30.3%)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자치경찰사무 각 분야별로 다양한 도민들의 치안 수요가 반영됐다.

▶ 2면에 계속

/유호상 기자

## '홀로그램, 현실로 한 걸음 더 가까이'

### 도, 홀로그램 HUD·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서비스 등 핵심기술 사업화 실증 2개 과제 선정 4년간 국비 77억 확보

전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홀로그램 핵심기술 사업화 실증 공모사업에 2개 과제가 선정돼 4년간 국비 77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홀로그램 핵심기술 사업화 실증은 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증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홀로그램 HUD', '홀로그램 기반 비파괴 검사',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및 가상화 서비스' 등 3개 과제를 4년간 지원 하는 사업이다.

도는 '홀로그램 HUD',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및 가상화 서비스' 2개 분야에 지난 2월 공모 신청했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모두 선

정됐다.

'홀로그램 HUD' 과제는 상용차용 대화면 다기능 홀로그램 HUD 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으로, 익산 소재 기업인 홀로랩을 주관으로 자동차용 홀로그램,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및 가상화 서비스' 과제는 홀로그램 획득 및 처리,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 문화재 손상을 최소화해 원형을 복원하고 홀로그램 문화재 전시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내 기업인 JKDS를 주관으로 모아 지오, 조이그림 등의 기업과 전북콘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콘텐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유호상 기자

